

# 순창군, 학교복합시설 1차 공모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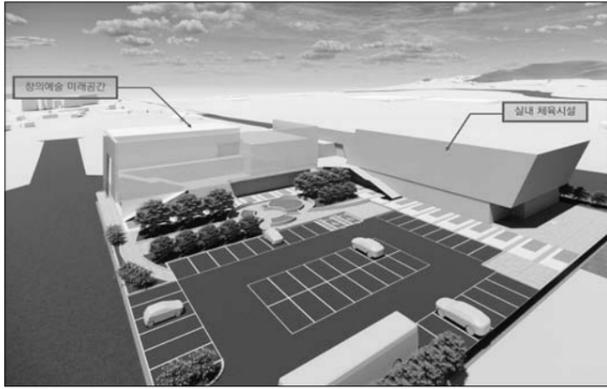
### 전북자치도교육청과 교육협력사업 '결실' ... 교육부 공모 선정 창의예술미래공간, 학교복합시설로... 194억원으로 사업비 확대

전북자치도교육청과 순창군의 교육협력사업이 결실을 맺었다. 1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가 주관한 '2024년 학교복합시설 1차 공모사업'에 순창군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학교복합시설은 학교 안 또는 유휴 시설 등을 활용해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지역 내 문화·체육·복지시설을 일컫는다. 수영장, 도서관, 체육관 등이 설치된다.

이는 당초 학생들을 위한 창의예술 미래공간으로 조성 예정이었으나, 교육청과 순창군이 수차례 협의를 통해 사업비와 사업 규모 모두 확대한 교육협력사업의 결실로 그 의미가 크다.

이에 순창 학교복합시설은 순창읍 순화리에 창의예술미래공간과 실내체육시설 2개동으로 건립된다.



순창 학교복합시설 조감도. (사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먼저 창의예술미래공간은 VR체험관·드론축구장·미래창작공간 등 학생들을 위한 공간으로, 또 실내체육시설은 인라인스케이트장·풋살장·농구장·배구장 등으로 조성된다.

특히 총 사업비도 67억원에서 194억원으로 증액됐다. 자체비 57억원을 비롯해 순창군 40억원, 교육부 복합시설 사업비 97억원이 확보된 것.

한편 전북교육청은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위해 순창군 공공청사부지를 청소년 수련시설로 변경해 매입을 추진 중이며, 올해 하반기 토지매입이 완료되면 설계용역을 거쳐 복합시설 준공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임경진 교육협력과장은 "학교복합시설을 통해 순창지역 내 청소년들의 문화 예술 및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주민들의 정주조건 개선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수련원은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한 DAY'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도모

### 학생수련원, '청렴한 DAY'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수련원(원장 강양원)은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한 DAY'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공직자의 청렴의식 기대치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들의 청렴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반부패·청렴 선포식으로 청렴 실천의지를 다지고, 이어 청렴전문강사 특강을 통해 부패방지 법령 및 제도의 이해, 이해충돌방지법 등 관련 법령을 쉽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에는 전 직원이 수련시설 주변 플로깅(걷기+줍기)으로 깨끗한 교육환경 및 양심있는 조직 문화 조성에 앞장섰다.

강양원 원장은 "자기 반성과 양심 회복 분위기를 조성해 청렴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더불어 공공기관으로써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에듀테크 소프트랩

### 운영기관 최종 선정

#### 전북자치도교육청

#### 광주·전라·제주권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부 주관 '2024년 에듀테크 소프트랩 공모사업'에 광주·전라·제주권역 운영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에듀테크 소프트랩은 공교육에 적합하게 개발된 에듀테크를 실증하고, 이를 학교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기관이다.

이날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전주교육대학교를 운영기관으로 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모에 응모했다.



전주대학교 의과대학은 1일 푸드테크 기업인 ㈜팔알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전주대학교 제공)

## 미래푸드테크 산업 산학협력 추진 중요 기반

### 전주대, '환자치료식 개발 스타트업' 팔알과 협약 체결

전주대학교 의과대학은 1일 푸드테크 기업인 ㈜팔알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팔알(PATR)은 효사랑메디컬그룹의 계열사로 환자치료식 개발 및 제조하는 스타트업 회사다.

이날 협약은 대학과 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술과 인력 교류, 인력 양성, 인프라 공동 활용, 기술개발 및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은 (주)팔알의 대회의실에서 전주대 의과대학 교수 및 (주)팔알의 김정연 대표 이사를 비롯한 양 기관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푸드테크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술정보 및 학술 교류, 제품 연구개발 지원, 기능성 원료 개발, 특허 취득 등을 공동 추진하게 된다. 또한, 각 기관이 보유한 연구시설 및 장비의 공동 활용과 인적·물적 교류를 통해 산학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산학협력 세미나, 협의회, 기업 재직자 교육 및 졸업생 연계 취업 등을 포함해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산학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식에 참석한 한국푸드테크협의회 전북지회 회장인 이정상 교수(전주대 식품영양학과)는 "푸드테크와 관련한 연구와 기술 협력 등 양 기관이 힘을 모아 지역 특화 농생명 자원과 연계한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새로운 푸드테크를 접목한 식품 시장 저변확대에 도바자하겠다"고 말했다.

## 전주기전대, 지역 청년

### 취업상담소 상시 운영

전주기전대학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전주 관내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역 청년 취업상담소를 상시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역 청년이라면 누구나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워크넷을 통해 참여신청이 가능하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특히 기본적인 진로상담부터 직업선호도검사를 통해 참여자 눈높이에 맞는 상담을 진행하고, 상담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취업제 제공 및 일선으로 지역청년들의 취업활동을 도울 예정이다.

조덕현 센터장은 "우리 지역 청년들에게 양질의 취업정보 및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의 취업 고민을 해결하고, 나아가 청년 취업허브 기능을 더욱 공고히 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전북자치도교육청, 총선 앞두고 공직기강 점검

### 9일까지... 정치적 중립 위반 등 주의해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오는 9일까지 공직기강 점검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공직자들의 정치행사 참석, SNS를 이용한 특정 정당·후보자 지지 또는 비방행위 등 정치적 중립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업무에 매진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각급 기관과 학교를 대상으로 공직자 정치적 중립 위반 사례를 비롯해 △근무지 이탈, 허위 출장 등 복무 위반 △금품·향응 수수 △음주운전 등 공직자 품위 훼손 행위 △학교회계 등 공공관리 실태 등을 중점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공무원행동강령, 청탁금지법, 갑질 근절 등의 교육 여부와 기관별 행동강

령 이행실태 등도 점검한다.

점검 결과 적발된 위반·부당사항은 공직사회 경각심 고취를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처벌할 계획이다.

이훈열 감사관은 "선거를 앞두고 일어난 수 있는 공직자들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 비위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처하겠다"면서 "모든 공직자들은 정치적 중립 위반 사항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 전북자치도교육청, 학부모 교육 강사 인력풀 공모

### 자녀이해 등 5개 분야... 8일까지 신청접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학부모교육 강사 인력풀을 공개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모집 분야는 자녀이해, 미래·진로교육, 성교육, 학교폭력예방, 학습코칭 등 5개 분야다.

지원 자격은 △최근 3년 이내 해당 분야 강의 경력이 있는 사람 △해당분야 실무·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해당분야 관련 자격증이 있는 사람 △해당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유치 있는 사람 △해당분야 관련 교육을 이수(경

험)한 사람이다. 다만, 범죄경력 등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하다.

학부모교육 강사로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8일까지 강사 지원서 등을 작성, 학부모교육 담당자 이메일(thankyou46@jbedu.kr)로 접수하면 된다.

이후 전북교육청은 서면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이달 중순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 'IB 인증교사 키운다'

### 전북자치도교육청, 남서울대학교 MOU 체결 올 IB 관심학교 중심, IB 인증교사 선발·양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일 남서울대학교와 IB 인증교사(IBC, International Baccalaureate Educator Certificate)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IBC는 IB 교사 자격증을 의미한다. IB 프로그램을 통한 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개념 이해 및 탐구학습 활동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성장을 추구하는 교육을 이수한 교사에게 자격증을 발급한다.

이에 따르면 이날 업무협약에는 △IBC(1년 비학위과정) 운영 전반 △IBC(1년 비학위과정)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IBC(1년 비학위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그 부담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이반 협약을 통해 전북교육청은 올해 IBC 과정 선발자 중 34명(초 9명, 중 23명, 고 2명)의 교사를 양성하게 된다. 교육비는 전북교육청에서 지원한다.

한편 남서울대학교는 국내 최초로 고등학교 과정인 IB DP와, 중학교 과정인 MYP 교사 양성과정을 인준받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일 남서울대학교 교과 IB 인증교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학으로 2022년부터 초·중·고 양성 과정을 모두 운영하고 있다.

서거석 교육감은 "IB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현장 안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IB 수업과 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교사 양성이 필수적"이라며 "이반 협약으로 남서울대학교의 전문성이 더해져 전북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교육과정 연계 미디어 교육자료 보급

### 전북자치도교육청 '슬기로운 미디어 생활' 개발 누구나 이해하기 수비게 애니메이션으로 제작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과정과 연계한 미디어 교육자료 '슬기로운 미디어 생활'을 개발·보급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 자료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춰 학생들에게 다양한 미디어를 생산·활용하는 미디어 민주시민역량을 길러주기 위함이다.

특히, 전북 교사들이 직접 참여,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했다.

또한 디지털 기반 교육 환경에서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전북교육청 유튜브(https://www.youtube.com/watch?v=6tk0udb\_QV1&t=22s)에 탑재해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 학부모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주요 콘텐츠는 △미디어 리터러시란 △가짜뉴스 vs 진짜뉴스 △미디어



분별 △디지털 에티켓 △사이버 폭력 △미디어 생활 점검 △미디어 저작권 △개인정보 보호 등으로 구성됐다.

김지유 민주시민교육과장은 "미디어 시대를 살아갈 우리 학생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질 수 있길 바란다"면서 "이번에 보급된 콘텐츠와 연계한 수업지원 자료도 함께 개발해 교사들의 현장 활용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